

01 교회소식

멈추지 않는 만민의 사역

교회 개척 41주년을 맞이까지 성결의 오중복음과 크고 놀라운 권능으로 함께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

02 생명의 말씀

감사의 마음

믿음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구원의 은혜와 영육 간에 강건한 축복, 가장 좋은 천국 새 예루살렘 소망 주심에 마음 깊이 감사할 수 있다.

03 기획특집

이후에 펼쳐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굳게 믿고 때를 기다리다면 결국 영육 간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며 하늘에 많은 상급도 쌓아갈 수 있다.

04 간증

“영육 간에 축복받았어요!”

안면마비, 손목 모세혈관 파열, 당뇨병을 통해 영육 간에 자신의 문제를 발견해 주 안에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치료받은 성도들의 간증.

만민뉴스

제998호 2023년 7월 23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교회 개척 41주년



교회 개척 예배, '92 세계 성령화 대성회,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전국대회, 2002 인도 연합대성회, 2009 이스라엘 연합대성회, 2022 만민 하계수련회.

몽골만민교회 창립 20주년 기념 예배



지난 7월 2일(주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몽골만민교회 창립 20주년 기념 예배 및 축하 행사가 울란바토르 노트 리조트 강당에서 진행되었다.

맥추감사절이었던 이날, 강사 임학영 목사는 1부 예배를 통해 '감사'(민 23:19)라는 말씀을 전한 후에 성찬식까지 집례했다.

2부 축하 행사는 담임 발저릭 선교사의 인사말과 이미영 목사의 창립 축하 메시지 영상 상영이 있은 후에 본교회 손영락 장로의 특송과 몽골만민교회 여선교회 회원들의 찬양, 남보석 무용팀의 몽골 전통 무용 등 다채로운 공연이 이어져 창립의 기쁨을 더해 주었다.

오후 2시 30분에는 권능의 손수건 집회(행 19:11~12)가 열렸는데, 강사 임학영 목사가 '응답과 축복의 하나님'(시 141:3)에 대해 설교하고 영상 '권능' 상영 후 회개와 성령 충만한 기도 시간을 가진 뒤 손수건 기도를 해 주었다. 기도 받은 성도들은 성령의 불이 임하는 강한 역사를 체험하며 치료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한편, 7월 1일(토) 오전 11시에 몽골만민교회 일꾼 교육 후 세례식이 있었으며, 점심 후 성도들은 가정별 심방을 받으며 영육 간에 문제 해결 받고 새 힘을 얻었다.



에콰도르 뿌요 손수건 집회

지난 6월 30일과 7월 1일 오후 7시부터 남아메리카 북서부에 위치한 에콰도르 뿌요 도시의 끈차 아구스티까에서 연인원 7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손수건 집회가 열렸다.

남아메리카 선교에 힘써온 강사 장정연 목사(콜롬비아만민교회)는 첫째 날 '왜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가?', 둘째 날 '성령의 역사'를 설교했으며, 권능의 손수건으로(행 19:11~12) 기도해 주므로 많은 사람이 치료받아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이 집회는 뿌요만민교회 리더인 알바 프리오조 성도가 은혜받고 체험한 성결의 복음과 권능의 역사를 뿌요 지역에 전하고자 준비하였으며, 스페인어권과 중남미의 성도들을 중심으로 여러 교회가 기도와 금식, 선교헌금으로 동참하였다.

강사 장정연 목사는 6월 30일 오전에 에콰도르 기독교 도지부 회장단 총회에 참석하였으며, 7월 2일 오전에는 빠스파사 목회자협의회 부회장인 후안 까베사스 목사가 담임하는 생명수강 교회에서 말씀을 전했고, 오후에는 필라델피아교회에서 설교 후 성찬식을 집례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감사의 마음

“내가 여호와와의 의를 따라 감사함이여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시편 7:17)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빛 가운데 행하며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할 때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복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야 할 감사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1. 참된 삶의 의미를 찾고 구원의 은혜를 주심에 감사하는 마음

많은 사람이 참된 삶의 의미를 알지 못해 세상의 헛된 것을 좇아갑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조차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 외에는 세상 사람과 다름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귀와 명예, 권세, 지식 등에 가치를 두며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더 많이 누리는 것을 목표 삼아 살아갑니다. 남보다 적게 누리는 것 같으면 마치 실패한 인생인 것처럼 스스로 비참하게 여기며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남부럽지 않은 부귀영화를 누리면서도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지 못해 더욱 세상 정욕을 좇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죽으면 끝이라는 허무함 속에서 스스로 생명을 버리기도 합니다. 마치 망망한 바다 한가운데서 나침반이 고장 난 배와 같이 표류하는 모습들이지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후, 참된 삶의 의미를 찾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사람이 왜 태어나고 살아야 하는지,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압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이 땅에서의 삶은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의 하나님 보좌 앞에 이르기 위해 하나님 형상을 되찾아 가는 시간입니다. 신랑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까지 천국의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것이지요.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며, 충성하고 헌신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먹이나 마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해 나가는 것이지요. 이런 소망 가운데 살아가니 하루하루가 얼마나 복되고 즐겁겠습니까?

주 안에서 구원받은 은혜를 떠올리면 기쁨이 넘칩니다.

죄를 버리며 변화되어 가는 만큼 성령의 감동함 속에 행복이 넘칩니다. 영으로, 온 영으로 들어갈수록 강물같이 솟아나는 즐거움 속에 살아가지요. 장차 천국에서는 이와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행복 속에 살아갈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더욱 진한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 영육 간에 강건하게 살 수 있는 축복을 주심에 감사하는 마음

사랑하는 자녀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영육 간에 좋은 것만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제 주 안에서 구원의 은혜가 있고 천국의 소망이 있으니 이 땅에서는 고통스럽게 살아가라.” 하시는 것이 아니지요.

요한삼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신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자녀들의 참된 행복을 위해 영혼이 잘되는 방법을 끊임없이 알려 주시지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도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말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를 행하는 사람, 곧 진리 안에 거하면서 날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간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잃지 않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는 영적인 빛으로 둘러 주시므로 질병이 틈탈 수가 없지요. 이미 있던 질병 균도 태워집니다.

예전에는 몸이 연약해서 쉽게 지치고 힘이 없어 툭하면 넘어지던 분들도 교회에 다니면서 충성하고 봉사하다 보니 어느새 강건해졌다는 간증이 얼마나 많습니까? 강건해지니 사명 감당도 전보다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천국 소망도 더해지지요. 혹시 질병이 틈뚫다 해도 즉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여 죄의 담을 혈면 치료됩니다. 만일 회개할 것이 없다면 더욱 감사하고 기뻐하면 되지요.

이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내보이면 중한 질병이나 연약함도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치료하시는 여호와께서 책임지고 고쳐 주십니다. 더구나 이 제단에는 권능의 역사로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것이 더 수월하지요.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면 예전보다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합니다. 질병만이 아니라 어떤 인생의 문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이 점점 더 커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생의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참된 행복만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더욱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3. 가장 좋은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의 소망을 주심에 감사하는 마음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영접하여 구원을 얻었으면 그다음에는 천국을 침노해 들어가야 합니다.

행함 있는 믿음으로 낙원에서 1천층, 2천층, 3천층, 삼위일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 성까지 부지런히 침노해 들어가야 하지요.

그러면 어떻게 침노하면 될까요? 행함으로 짓는 죄는 물론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죄도 벗어 버려야 합니다. 결국은 마음에 있는 죄성까지도 뽑아내고 성결을 이루어야 하지요. 또한 온 집에 충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성경을 읽어도 이런 영적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천국을 침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새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지도 모르지요. 낙원(눅 23:43)이나 셋째 하늘(고 후 12:2), 새 예루살렘(계 21:2) 같은 표현들이 나와도 ‘다 똑같은 천국을 말하는 것이겠지.’ 하며 막연하게 짐작할 뿐입니다. 죄성을 뽑고 성결된다는 개념조차 없으니, 성결을 이루고자 노력할 수도 없지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설교를 통해 천국의 분류에 대해 알 뿐만 아니라 천국 생활도 압니다. 어떻게 하면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교회
대표전화 02) 818-7000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나안]	8:30 PM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다니엘 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 코로나19로 인해 일부 변경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 및 관련 문의: 02-818-7236

이재록 목사의 부흥성회 설교집

URIM BOOKS

+교보문고, 영풍문고, 북스리브로, 예스24, 인터파크 등에서 판매+

있는지 세세하게 알고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알려 주어도 여전히 그 길로 가지 못하는 분들이 많았기에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에게 99% 공의를 채우게 하셨고, 신뢰와 사랑으로 하나 된 분들이라면 나머지 1% 공의만 채우면 갈 수 있게 하셨지요.

비유 들어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예루살렘 성 천국 잔치의 초대장을 보내시면서 그 길을 자세히 알려 주는 지도까지 보내 주시고, 그래도 못 오는 사람이 있을까 봐 이제는 자동차까지 보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하거나 망설이지 말고 더욱 기쁨과 감사로 가장 좋은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해 힘차게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6장 53절에 “...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인자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말씀

을 양식 삼는다는 뜻이지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영으로 이루어 자기 마음을 진리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인자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 그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행함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는 뜻이지요.

이러한 영적인 의미는 대부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잘 아는가’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느냐’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직분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얼마나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느냐에 따라 영적인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만일 ‘미움’을 버려야 한다고 배웠으면 즉시 자기 마음 안에 있는 미움을 발견해 버리고자 노력해 가야 합니다. ‘싫다. 밉다.’ 하는 느낌이 들려고 하는 순간에 ‘아니야. 싫지 않아. 밉지 않아.’ 하면서 생각과 느낌을 바꿔야 하지요. 또한 행함으로도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예전 같으면 외면하고 지나갔을 사람을 만나도 적극적

으로 인사하고 손잡아 줍니다. 상대가 좋아할 만한 일을 찾아 행하거나 기뻐할 만한 선물을 주기도 하지요. 한 번, 두 번 해 보다가 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미움이라는 죄성이 마음에서 근본 뿌리까지 뽑히도록 불같은 기도를 쌓아가야 하지요. 그럴 때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와 능력이 임해 사랑이 채워지고 미움이 뽑혀 나가는 것입니다. 험기나 간음, 교만과 탐심을 버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결국 영으로, 온 영으로 들어가는 방법이지요. 부지런히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0장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했습니다. 독생자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항상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획특집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때를 기다립니다!

땅에 뿌린 씨가 싹이 나려면 일정한 기한이 있고 열매를 얻을 때까지 필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씨앗의 종류에 따라 열매를 거두는데 필요한 시간이 각기 다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심은 후에도 금방 응답받아 열매를 딸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고 말씀합니다.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씨앗을 심어 놓고 때를 기다리지 못해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있지요. 사업이나 직장 생활을 하든 혹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든 모든 것이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75세에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갔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의 후손을 얻은 것은 25년의 세월이 지나 100세가 되는 해였습니다.

아담 역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는 20년간이나 외삼촌 밑에서 연단을 받아야 했습니다. 마침내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그의 꿈에 나타나셔서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인도해 주셨지요.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는 40년간이나 광야에서 연단을 받은 후,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친히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 시킬 큰 사명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도 정해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심어 놓고 금방 열매가 안 나오면 초조해하고 염려하며 불인해 한다든가, 때로는 부정적인 입술로 헐어 버리는 말을 한다면 이는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급한 마음에 자기 생각을 동원해 나가면 결국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 일을 이루게 되니 원치 않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원수 된 육신의 생각을 깨뜨려 버리고 영적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의 생각은 아무리 지혜로워 보여도 하나님의 생각과는 차원이 다르기에 결국 방해가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으니, 현재를 기준으로 앞일을 이루어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답답한 것 같아도 만사가 형통하게 풀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방법대로 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르러라 약속하신 것을 마음에 굳게 믿고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하니까 무작정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도록 기다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가운데 마음 문을 열어 놓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주관을 받아야 하지요. 내가 앞서서 내 생각대로 일을 이루고 내 힘으로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함으로 성령의 주관을 받아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 문제를 놓고 축복받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했다면 분명히 때가 되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한 즉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크기에 따라 응답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시켜 주신 후 응답해 주시지요.

먼저는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도록 연단 하셔서 영혼이 잘되게 하고,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사업 수완이 뛰어나도록 만드시며, 사업이 확장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으로 인도하시고, 필요에 따라 좋은 사람을 보내 주셔서 모든 것을 협력해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어떤 학생이 좋은 대학에 들어갈 것을 믿고 기도했다면, 먼저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공부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열심히 공부하게 하고 잡념을 없애 주시며 지혜를 주셔서 공부 잘할 방법을 터득하게 하실 것입니다. 열심히 행하는 만큼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하신 후에 때가 이르면 응답해 주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믿음으로 대성전을 건축하고 세계를 이루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서 일하는 일꾼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지 못하여 조급해하거나 자기 생각에 맞추어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불같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고 도울 자를 예비하시며 우리가 움직여야 할 때를 알려 주십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며 성령의 주관하심에 따라 순종하여 담대히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이처럼 모든 분야에서 믿음으로 때를 기다리심으로 풍성한 열매를 거두며 하늘에 많은 상급을 쌓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설교
《좋은 것으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중에서





“안면마비를 치료받았습니다”

전옥순 권사 (64세, 1대대 2교구)

2023년 3월 2일(목), 일하려고 준비하는데 갑자기 왼쪽 눈에서 눈물이 주룩주룩 흘렀습니다. 이후에도 이 현상은 계속되었지요.

게다가 그다음 날에는 입을 벌렸는데 입이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원인을 알고자 병원에 갔습니다.

간호사는 저를 보더니 제 왼쪽 눈이 안 감긴다고 하였는데, 의사가 시키는 대로 “우~” 하고 따라했더니 입이 오른쪽으로 틀어졌지요. 진단 결과, 제 병명은 안면마비였습니다.

처음에는 병명을 듣고 놀라며 당황하였지만, 이

후 매일 밤 다니엘 철야 기도회와 월요일 환자 랜선 기도회에 참석해 간절히 기도하니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느끼면서 감사가 넘쳤습니다.

◆
예전 같았으면 안면마비가 왔다는 사실에 그저 마음이 무겁고 힘들었을 텐데 이번에는 어찌하든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크게 다가왔지요. 저는 기도하면서 걱정 근심하는 마음, 인정받고 위로받고 싶은 마음 등을 발견하며 이러한 마음을 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참으로 따뜻하고 포근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그동안 변화되지 못하고 안주해 있던 제 신앙

을 통회하며 자복하였습니다. 그러자 마음에 평안함이 오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는 확신이 들면서 중심에서 기쁘고 행복했지요.

그러던 3월 12일 주일예배 설교 후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환자 기도(영상)를 받는데 그날따라 기도 내용 중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라는 말이 제 귀에 속 들어왔습니다.

저는 기쁜 마음으로 “아멘!” 하며 간절하게 기도를 받았지요.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안면마비가 풀려 깨끗이 치료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며 응답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왼쪽 손목의 모세혈관 파열을 치료받았어요”

고은숙 권사 (62세, 2대대 14교구)

2023년 3월 13일(월), 왼쪽 손목이 찌릿찌릿 아팠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통증이 심해지더니 급기야 멍든 것처럼 진갈색으로 변했지요. 심한 통증으로 인해 손

을 움직일 때마다 “앗!” 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16일(목), 정형외과에 가서 진단받으니 왼쪽 손목의 모세혈관이 파열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손목 지지대로 고정하고 주 2회 물리치료와 도수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태이니 제가 집안일을 할 수 없어서 남편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더욱이 제가 속한 여선교회 해피니스팀이 아버지날 행사에서 우

쿨렐레를 연주하기로 되어 있어서 더더욱 신속히 치료받기를 간절히 원했지요.

◆
때마침 4월 23일(주일), 만민기도원 이복님 원장님께서 성령 충만 기도회 인도 차 강동지성전에 오셔서 원장님의 기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그 뒤 증세가 많이 호전되어 아버지날 행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지요. 하지만 미미한 통증이 간헐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5월 작정 다니엘 철야에 참석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
저는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자기 유익을 구하는 마음, 비겁한 마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불편한 마음, 내 입장만 고집하는 마음 등 많은 것을 깨우치고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
그리고 5월 26일(금) 은사 집회에 참석하였는데 제 눈에서는 예배 시작 전 준비찬양을 할 때부터 감사와 은혜의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지요.

◆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의 설교에 큰 은혜가 임했고, 환자 기도를 해 주실 때는 단어, 문장, 문맥, 억양 등 모든 것이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병명 하나하나를 불러 기도하실 때 “아멘, 아멘!” 하며 간절히 기도 받았지요.

◆
이후 제 마음은 뜨거웠고 치료받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뒤 왼팔을 움직이며 손목을 돌려 보니 통증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
저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잘 아시기에 치료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당뇨병을 치료받았습니다”

문영수 집사 (63세, 중국 2교구)

2023년 5월 초부터 입안이 바싹바싹 마르고 목이 타는 듯한 갈증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마실 때는 40분마다 화장실을 가야 했습니다.

◆
밤에도 화장실을 자주 가니 깊은 잠을 잘 수가 없었지요. 몸은 항상 피곤하고 무엇을 먹어도 소화가 잘되지 않았으며 체중도 줄었습니다. 심상치 않은 몸의 이상을 느끼면서 원인을 알아야겠다 싶어

◆
병원에 가서 진단받은 결과 당뇨병이었습니다. 혈당 수치가 400이나 되었지요.

◆
건강 검진을 받을 때마다 전혀 건강에 이상이 없었기에 당뇨병이라는 진단 결과는 제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에 마음이 매우 답답하고 극심한 소화불량까지 겪었지요.

◆
5월 22일(월), 제가 속한 교구가 작정 다니엘 철야 현장 기도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만민기도원 이복님 원장님의 손수건 기도(행

◆
19:11~12)를 받고 기도하면서 ‘왜 이런 질병이 나에게 왔을까?’ 하고 지난날을 돌아보았습니다.

◆
그동안 구역장 사명을 감당하면서 잘 따라주지 않는 사람을 볼 때 불편해했던 마음이 떠올라 저는 통회자복하며 회개하였지요.

◆
이후 소화가 잘되고 몸에 힘이 주어지는 것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5월 26일(금), 혈당 수치를 재보니 130으로 정상 수치였지요. 할렐루야!

◆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번영1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어방동1099-2 JJ빌딩 4층 ☎010-6218-070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010-6425-8705
- 마산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광령천서로 57 광림빌딩 7층 ☎010-8741-2073

- 목포만민교회 전남 목포시 상동 비파로 135-1 2층 ☎010-3927-7526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도로 167-82 ☎061)452-7443, 010-6320-5984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4547-419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영서면 향환리 374 ☎042)841-0091, 010-7195-1099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예천동 650-5 ☎010-6306-9798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만리광원길 7-1 3층(교동)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장천동 팔마로11-5 3층 ☎061)745-1117, 010-6603-7266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청문로 129 향야빌딩 3층 ☎041)546-1537, 010-2672-0244
- 여수만민교회 전남 여수시 망마로 102 ☎061)652-8311, 010-2325-1228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진주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층 ☎055)854-5816, 010-4849-1479
- 천안만민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령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가락길 71 ☎043)293-7077, 010-8291-7173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옥산포길 17-7 ☎010-6772-7710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거룡2길 53-1 2층 ☎043)845-0617, 010-2447-9217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2201-0542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5611-725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2290-1856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5611-7254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7736-9333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아람로 95 ☎010-2201-0542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150번길 26 2, 3층 ☎031)202-8480, 010-3330-3172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2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9636-7977
- 영종도지성전 인천광역시 중구 은하수로 351 832동 402호 ☎010-5611-7254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4710-9649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이섭대천로 1177번길 12 ☎031)635-9103, 010-2201-0542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032)863-9857, 010-5611-7254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릉로 18, 아원B/D ☎031)905-2419, 010-4710-9649